

都市主婦의 婚·祭禮에 對한 意識과 行動에 關한 研究

A Study for the City Housewives' Sense and Behavior of Wedding and Ancestral Service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이 정 우
대학원생 김 명 나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Univ.

Prof; **Jung Woo Lee**

Graduate School Student; **Myung Na Kim**

<目 次>

I. 序 論	IV. 調査結果 및 分析
II. 理論的 背景	V. 結論 및 提言
III. 研究方法	參考文獻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1) the level of the city housewives' sense and behavior of wedding and ancestral service according to the background variables, 2) the relationship of the sense of wedding and ancestral service and behavior, and 3) what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ar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700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the housewives who live in Seoul and collected during the February 1989. And the measuring instruments are composed of 9 questions, 11 questions of the sense of wedding service, 12 questions of the sense of ancestral service, 11 questions of the behavior of wedding service, and 12 questions of the behavior of ancestral service.

To obtain the sense and behavior of wedding and ancestral service scale, item analysis through Pearson's correlation and factor analysis, frequency distribution,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F-test, Pearson's γ , Paired-t-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general tendency of the city housewives' sense of wedding service was modern. That of the city housewives' sense of ancestral service was the mid level of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 (ie: age, educational level, the number of children,

the duration of marriage, religion, the existence of job, the existence of married son and daughter), the city housewives' sense of wedding service is different significantly.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 (ie: age, educational level, the average home income a month, the number of children, the duration of marriage, religion, the existence of married son and daughter), the city housewives' sense of ancestral service is different significantly.

2. The general tendency of the city housewives' behavior of wedding service was modern. That of the city housewives' behavior of ancestral service was somewhat modern.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 (ie: age, educational level, the number of children, the duration of marriage, the existence of married son and daughter, the form of family), the city housewives' behavior of wedding service is different significantly.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 (ie: age, educational level, the number of children, the duration of marriage, religion, the existence of job, the existence of married son and daughter), the city housewives' behavior of ancestral service is different significantly.

3.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ity housewife' sense and behavior of wedding and ancestral service ($p < .001$).

And the housewives' sense of wedding service was modernized than that of ancestral service, the housewives' behavior of ancestral service was modernized than that of wedding service.

4. The city housewives' sense of wedding service was the duration of marriage ($\beta = -.226$), influential factor. And influential factors on that of ancestral service were educational level ($\beta = .250$), the existence of married son and daughter ($\beta = -.123$), number of children ($\beta = -.101$).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 city housewives' behavior of wedding service were age ($\beta = -.193$), the form of family ($\beta = .097$). And that of ancestral service were educational level ($\beta = .165$), the number of children ($\beta = -.157$).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社會變動과 西歐文化의 유입으로 인한 個人主義, 自由主義, 民主主義 등의 思潮가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것들이 개인 각자의 意識構造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며 물질 생활, 사회관계 및 정신면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가정도 社會的 存在이기 때문에 가정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도 심한 변화가 야기되었으며, 冠婚喪祭의 四禮 중 특히 가정에서 관행되고 있는 婚·祭禮의 儀式節次가 너무 煩文縟

禮에 흘러 虛禮虛飾化된 감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장철수, 1975, p. 109). 더욱이 人倫大事라 할 수 있는 婚禮行事は 소홀하게 하거나 허술하게 해서도 안되겠지만 지나친 자원투입으로 社會的 物의를 일으키고 個人的으로는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 人倫大事의 뜻을 흐리게 하며, 또한 祭禮에 있어서 祭祀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데 있어서의 비용·시간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물질적, 정신적 부담이 되고 있다(서봉자, 1983, p. 59).

한편 우리나라의 傳統的 道德觀念이 儒敎思想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外來宗教가 유입되고 아울러 西歐化를 지향하는 근

대화과정에서 유교적 倫理意識은 현저하게 퇴색되고 있다(이길표, 1982, p. 2).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젊은세대와 기성세대의 가치관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觀念과 行動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며, '傳統의 尊重' 아래 옛 것에 대해 애착하는가 하면 '近代化'의 표어 아래 外來의 것을 찬미하기도 한다(김태길, 1975, pp. 200-201). 그러므로 傳統性을 지닌 우리 美風良俗과 西歐文化의 新思考方式 및 行動方式이 우리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급변하는 現代社會에서 意識화 行動의 차이는 클 것이고 전통과 근대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을 실제로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되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며,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을 관련시킨 심층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부를 대상으로 가정행사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을 알아보고 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가정생활 전반의 향상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本 研究에서는 都市主婦의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이 背景變因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間의 關係를 규명하며, 어떤 變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주부들이 婚·祭禮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그 의미를 재정립하여 바람직한 가정생활 문화향상 및 합리적인 가정행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研究目的이 있다.

2. 研究의 制限點

1) 조사대상으로 서울시 主婦를 의도적으로 표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2) 本 研究는 祭祀의 종류 중 특히 忌祭祀에 국한시켰으므로 제사의 종류를 모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3) 가정마다 婚·祭禮 儀式節次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관된 양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用語의 定義

1) 婚·祭禮에 대한 意識: 婚·祭禮에 대한 行動方向과 目標에 대하여 자신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선택하는 생각을 말한다.

2) 婚·祭禮에 대한 行動: 婚·祭禮에 대해 실제로 행하는 活動의 總稱을 말한다.

3) 傳統性: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에 있어서의 傳統性은 朝鮮時代에 보편화된 婚·祭禮 관습에 높은 규범적 의의를 지니고 尊重하며 지키려는 보수적 경향을 말한다.

4) 近代性: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에 있어서의 近代性은 西歐의 개인주적이고 과학적, 합리적인 사상을 지지하고 따르는 경향을 말한다.

II. 理論의 背景

1. 婚 禮

1) 婚禮의 意義

婚禮란 혼인의 意義를 구체적으로 節文한 儀式節次이며 婚禮儀式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된 가정이 형성된다.

禮記(冠義 婚義 第四十四)에서 婚禮의 참뜻은 「장차 두 姓의 좋은 것을 합쳐 위로는 종모에 섬겨 祭祀의 主人이 되며, 아래로는 子孫을 후세에 계속시켜 조상의 代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즉 종래 傳統의 社會에 있어서의 최대의 관심사는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을 '家'를 영속·발전시켜 子孫에게 계승하는 것이었고, 결혼이 祖上祭祀, 男兒獲得의 수단으로 되었던 것이므로 「혼례절차는 가장 신성하고 중대한 것으로 여겨져 경솔하게 거행되어서는 안되었다」(이길표, 1982, p. 15).

2) 傳統的 婚禮

朝鮮의 혼인풍속은 四禮便覽에 근원을 둔 것이고(김일미, 1969, p. 5), 전통적 결혼절차는 朱子家禮에 따라서 議婚·納采·納幣·親迎 등의 四禮를 통용하였다(이효재, 1967, p. 182).

① 議婚

의혼은 혼인에 필요한 資格, 條件, 義理와 같은 것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혼례의 節次이며 儀式은 아니다(보건사회부, 1973, p. 5).

② 納采

당사자의 부모끼리 중매인을 통해 일단 혼인하기로 합의하여 定婚하게 되면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四柱와 請婚書를 보내는데 이를 납채라 한다(이두현, 1982, p. 69).

③ 納幣

납폐는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대하여 혼인을 허락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내는 예물로(조양재, 1987, p. 26), 奉采라고도 하며 흔히 함이라 일컫는다.

④ 親迎

친영은 신부를 맞이해 온다는 뜻으로, 신랑이 혼례를 치르기 위해 신부집으로 가는 初行, 신랑이 雁夫를 대동하고 들어가서 기러기를 전하고 尊雁禮를 행하는 小禮, 혼례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交拜禮와 合卺禮를 합쳐 醮禮라 부르는 大禮, 신부가 시집에 가는 新行으로 이루어진다. 신부가 신랑집에 오면 장만해온 폐백음식을 시부모 앞에 바치고 四拜를 드리는데 이를 幣帛 또는 見舅姑禮라고 하며, 신부가 新行한 다음 처음 친정에 가는 것을 親親이라 한다(양재연 외, 1980, p. 211).

3) 婚禮의 現代的 傾向

특히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産業化·都市化의 진행과정에서 혼례의 양상도 많이 변화하였다(최재석, 1987, p. 129).

① 配遇者 選擇權

전통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부모나 집안 어른들이 主婚者로서 자녀들의 혼인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權利를 행사하였으나 社會가 변화함에 따라 父母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子女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형태로 변모하다가 요즘은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부모의 승락을 받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있다(이효재, 1983, pp. 59-61).

홍준숙(1987, p. 35)의 연구에서도 배우자 결정의 주체에 대한 질문에서 男女 모두 「자신이 결정 후 부모동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② 配遇者 選擇基準

현대 家族生活에서는 家門끼리의 혼인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두사람 사이의 관심과 취미가 상통할 수 있는 비슷한 教育, 文化的 背景을 지닌 배우자를 각자가 선택하려고 함을 알 수 있다(이길표,

1982, p. 95).

고영복(1967, p. 324)의 연구에서는 배우자나 子婦의 선정기준으로 가문보다 인격을 중요시한다고 했으며, 강은숙(1981, p. 56)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선택기준의 요소로서 건강과 성격을 가장 우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宮筵·擇日

궁합과 택일의 행사는 運命論에 依據한 가장 확고한 傳統的인 관습의 하나로서 오늘날까지 고수되어 왔으나,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점차 소멸되어가고 있다(최재석, 1966, pp. 440-441). 강은숙(1981, p. 56), 홍준숙(1987, p. 42)의 연구에서는 궁합 및 사주 등은 배우자의 선택기준으로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④ 約婚

納采가 현대식 혼례에서는 약혼식으로 대신되는데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기독교식 혼례식이 유행할 때부터 이 절차는 없어지기 시작했으나 四柱나 擇日을 교환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양재연외, 1980, p. 211). 그러나 강은숙(1981, pp. 57-58)의 연구에서는 약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⑤ 婚需·禮綴

요즈음은 예단이 본인의 능력을 넘어 과다하게 보내지는 경우가 있으며, 초호화혼수의 경향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동아일보, 1987, 11.14 11면). 그러나 이길표(1989, pp. 162-163)의 연구에서 결혼준비물과 예단의 구입에 있어 형편에 맞게 준비하는 등 합리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⑥ 函

종래에는 함 속에 보통 신부 치마저고리와 혼시지를 넣어 보냈으나(김성배, 1980, p. 154), 근년에 와서는 함 속에 지나칠 정도의 幣物과 옷감, 기타 값진 물건을 넣으며 신랑의 친구가 함을 지고 가서 돈을 많이 要求하는 지나친 태도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수가 있다(이행숙, 1982, p. 18).

⑦ 幣帛

친영의 儀式인 폐백드리는 절차는 현대에도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따르고 있으나 신부의 폐백드리는 예식에 대한 태도가 점점 형식적으로 흐르는 듯하여 略式으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형식이 자

취를 감출 것 같지는 않다(이효재, 1967, pp. 188-189).

2. 祭 禮

1) 祭禮의 意義

祭禮는 제사를 지내는 예절이며 그 儀禮의 표현을 통하여 실현되는데 특징이 있으며(이영미, 1987, p. 94), 유교적인 제례로서의 祭祀란 祭를 행하는 순서, 형식, 예절을 總稱한다(조기홍외, 1986, p. 271).

즉 우리의 유교적인 冠婚喪祭의 제례는 한마디로 일가일족의 私事이며, 祖上崇拜 祭儀이지만 특히 朝鮮朝 5백년간 治國理念이었고 종교의 세계까지 형성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사회의 민중수준에까지 깊이 침투하여 민속화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思考·家族·性品에까지 확고히 뿌리박힌 행동원리가 되었다.

2) 傳統的 祭禮

전통사회의 祖上崇拜儀禮 양상은 産業化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의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임돈희, 1986, pp. 147-148), 우리나라는 朝鮮朝 이래 儒教思想에 의한 조상숭배를 중히 여겨왔으므로(최재석, 1970, p. 49) 四禮便覽에 나타난 제사의 형식에 대한 논의를 奉祀代數, 祭時, 祭器, 紙榜 및 祝文, 祭服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① 奉祀代數

宗法에는 五世則遷의 原則이 있어서 直系宗孫에서 거슬러 四代組 즉 고조까지는 기제사를 지낸다(홍현주, 1986, p. 14).

② 祭時

忌祭는 亡人을 추념하기 위하여 亡人의 忌日子正에 지낸다(이광규, 1977, p. 5).

③ 陳設

祭床차림은 魚東肉西, 左脯右醢, 紅東白西, 麵西餅東, 頭東尾西의 원칙에 따라 제 1 열에는 羹飯醋盞匙, 제 2 열에는 魚肉饌麵, 제 3 열에 蔬菜脯醢, 제 4 열에는 과실을 배열하였다(이 재, 사례편람; 이영미, 1987, p. 98에서 재인용).

④ 祭器

유기나 木器를 마련하여 보관하였다가 祭日前에 준비한다.

⑤ 紙榜 및 祝文

父親의 지방은 “顯考學生 府君神位”라 쓰고, 母親의 지방은 “顯妣孺人○○○氏 神位”라 하여 本貫과 姓을 기입한다.

⑥ 祭服

주인 형제는 布衫에 布帶를 띠고 祖 이상은 黻絲衫을 입고(홍현주, 1986, p. 14), 여자의 경우 祭服은 3年喪 이내에는 喪服을 하나 기제례에는 천담복을 입는다(이영미, 1987, p. 97).

3) 祭禮의 現代的 傾向

傳統的인 祭祀는 무엇보다도 그 形式을 중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성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합리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었는데, 엄격한 제사의 형식성은 서구적인 合理的 사고방식이 사회에 침투하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이해영외, 1967, p. 1961).

① 奉祀者

종래에는 祭主는 故人의 장자 또는 장손이었으나 현대에는 반드시 장남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박인덕(1979, p. 40), 이길표(1982, p. 40), 박순천(1986, pp. 67-68)의 연구에서 「제주가 장남이기를 원한다」는 응답에 모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봉사자가 꼭 장남이어야 한다」는 傳統儀式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② 奉祀代數

忌祭의 대상이 반드시 4代까지여야 한다는 傳統意識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박순천(1986, p. 67-68)의 연구에서 기제사의 범위에 관해서 「2代까지 지내는 것이 좋다」에 78.9%의 응답율을 보였고, 이영미(1987, p. 50)의 연구에서는 「2代까지 지낸다」에 84.9%의 응답율을 나타냈다.

③ 祭時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종래에는 子時에 정했으나, 근래에는 변화되어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가족의 합의에 따라 조정되어도 상관없다고 하였다(김상혁, 1989, p. 226).

④ 陳設

종래에는 陳設時에 격식이 엄격히 지켜졌으나 근래에는 많이 간소화되고 있다. 서봉자(1987,

pp. 58-59)의 연구에서 제사음식은 「형편 닿는대로 준비한다」가 58%,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한다」가 35%로써 주어진 여건에서 충실하고자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⑤ 紙榜 및 祝文

지방사용 여부는 서봉자(1987, p. 68)의 연구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教育水準에 도달하면 지방을 사용하는 것이 건근대적이라 생각하여 사진 등으로 대체하는 경향이라고 했다.

祝文은 한문보다는 한글로 알기 쉽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며(조양제, 1989, pp. 141-142), 박수정(1989, p. 48)의 연구에서 「祝文을 생략한다」가 28.1%로 나타난 것을 보아 형식에 있어 간편을 우선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고 했다.

⑥ 祭服

제복의 착용여부는 임옥재(1981, p. 148), 이길표(1989, p. 151)의 연구에서 「깨끗한 옷을 입는다」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서봉자(1987, p. 58), 박수정(1989, p. 48)의 연구에서도 祭服으로 평상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근래에는 제복의 착용에 있어서 매우 간소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

1) 婚・祭禮에 대한 意識 및 關聯研究

朝鮮祖의 婚禮와 祭禮는 家門意識과 관련이 깊었고 가문의식이 높으면 祭禮意識은 물론 婚禮意識과도 관련이 깊었으며, 제례의식과 혼례의식은 서로 관련이 컸다. 또한 젊은층과 기독교인일수록 本人中心의 개방적 수용태도의 意識이 강했고, 本人을 위한 行禮는 추종이 아닌 자기중심의 자각이 강했으며 傳統意識은 낮았다(이길표, 1982, p. 139).

박인덕(1979, pp. 136-148)의 연구에서는 結婚儀式에 대한 가치관이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근대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祭祀儀式에 대한 가치관도 무조건 전통지향성이 아니라 傳統을 보완하면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

최호원(1983, p. 92)의 연구에서는 과거의 婚姻意識이 조상을 모시고 後嗣를 잇는 역할에서 현재

는 당사자 세대중심으로 변화하였다고 했으며, 옥선화(1975, pp. 442-443), 임옥재(1981, p. 141), 박순천(1986, p. 72)의 연구에서는 조상제사에 대한 傳統적인 가치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는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2) 婚・祭禮에 대한 行動 및 關聯研究

최재석(1965, p. 137)은 우리나라와 같이 傳統적인 가족원리에서 서구적인 近代的 가족원리로 옮겨가는 사회에 있어서는 가족에 대한 규범의식과 행동의 양 측면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길표(1982, pp. 3-116)의 연구결과에서는 현대 혼례실태에 나타난 意識은 부모중심의 主觀的 行禮에서는 가족중심의 愛敬 精神을 근본으로 행하였고, 본인의 주관의식에 대한 행위는 편리지향적이며 재산위주의 행동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 제례 실태에 나타난 意識에서는 조상숭배의 관념체제가 변모되고는 있으나 되도록 祭祀를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리한 절차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순천(1986, p. 64)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주부들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직접 혹은 집안 제사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수정(1989, pp. 62-63)의 연구에서는 도시주부들의 祭禮行動은 意識과 마찬가지로 傳統적으로 행함을 알 수 있었다.

4.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에 영향을 미치는 諸要因

1) 연령

家禮에 대한 가치관이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박인덕, 1979, p. 59), 이길표(1982, pp. 96-104)의 연구에서는 婚禮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傳統意識이 높았다. 「부모가 혼인을 반대하면 포기해야 한다」와 폐백을 드릴 때 하는 절의 형식으로 「신부만 한다」고 응답한 율이 연령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이효재(1967, pp. 186-188)의 연구에서 약혼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거행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길표(1989, p. 162)의 연구에서 婚禮는 연령이 높을수록 傳統意識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옥재(1981, p. 156), 이연주(1984, p. 111), 홍현주(1986, p. 59)의 연구에서는 낮은 연령층보다 높은 연령층에서 祭祀에 대한 가치관이 傳統적이었고, 이길표(1982, pp. 105-117)의 연구에서는 祭禮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현저하게 傳統意識이 높았으며, 지방·축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전통의례대로 쓴다」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박수정(1989, p. 50)의 연구에서 기제사 시간은 「사망당일 해진뒤」에 30세미만인 주부들이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2) 학 력

학력에 따라 家禮에 대한 가치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박인덕 1979, p. 81), 이행숙(1982, pp. 32-36)의 연구에서 예단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안하겠다」에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이길표(1989, p. 154)의 연구에서 見舅姑때 절은 「신부만 한다」에 고졸이 가장 응답율이 높았다.

한편 임옥재(1981, pp. 147-148)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제사를 지내는데 대한 傳統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고 했으나 학력에 관계없이 95%의 높은 비율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했으며, 이길표(1989, pp. 154-162)의 연구에서는 祭禮行禮에 있어서 학력이 낮을수록 傳統意識을 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월평균 가계소득

월소득에 따른 家禮에 대한 가치관은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박인덕, 1979, p. 81) 홍현주(1986, p. 60)의 연구에서는 祭祀에 대한 가치관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전통적으로 나타났고, 옥선화(1975, p. 449)의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이 상층일수록 재래식 제사를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 近代性을 나타냈으며, 서봉자(1983, p. 59)의 연구에서는 월수입이 많을수록 제사비용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종 교

이길표(1982, pp. 95-119)의 연구에서 婚禮意識은 기독교와 유교층에서 가장 전통적이었다. 「부모가 반대하면 혼인을 포기한다」, 「폐백을 신부만 드린다」에 유교층이 가장 높았으며, 약혼식이 필요한 경우 「양가부모와 당사자가 집에 모여 약혼서를 교환하는 방법을 원한다」에는 기독교층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임옥재(1981, pp. 151-157)의 연구에서 「제사를 꼭 지내야 한다」에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의 순으로 높았으며, 불교와 무교층은 97%가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이길표(1982, pp. 108-110)의 연구에서 祭禮意識은 기독교층에서 가장 近代적이었고 유교층에서 가장 傳統적이었으며, 또한 이길표(1989, pp. 154-157)의 연구에서도 祭禮行禮는 종교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정(1989, p. 56)의 연구에서 「忌祭祀는 사망당일 이른 새벽에 지낸다」에는 유교집단이, 「祭器는 평상시 쓰는 그릇으로 사용한다」에는 기독교집단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5) 가족형태

박인덕(1979, p. 81)의 연구에서는 가족유형별에 따른 家禮에 대한 가치관은 차이가 없었으나,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으로써 가정생활의 내용도 변화가 초래되어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도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위의 변인뿐만 아니라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기혼자녀유무, 직업유무도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III. 研究 方法

1. 研究問題 및 假說設定

<연구문제 1> 도시주부의 婚·祭禮에 대한 意識은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며, 이는 背景變因(주부의 연령, 학력, 월평균가계소득, 자녀수, 결혼지속년수, 종교, 직업유무, 기혼자녀유무,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1-1) 도시주부의 혼례에 대한 의식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도시 주부의 제례에 대한 의식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도시주부의 婚·祭禮에 대한 行動은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며, 이는 背景變因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2-1) 도시주부의 혼례에 대한 행동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도시주부의 제례에 대한 행동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도시주부의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間에는 어떠한 相關이 있는가?

(가설 3) 도시주부의 婚·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간에는 상호관련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4> 도시주부의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變因은 무엇이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어느정도인가?

2. 調査道具의 選定 및 作成

婚禮에 대한 意識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최재석 1965, 이호재 1967, 박인덕 1979, 이길표 1982, 이행숙 1982, 최호원 1983, 김명자 1985)를 참고로 하고, 종래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혼례 절차인 議婚, 納采, 納幣, 神迎의 4단계를 토대로 하여 현대적 혼례 양상에 적합하게 변형시켜 요인분석한 결과, 配遇者 選擇, 約婚, 婚需·函, 幣帛의 4부분으로 구성된 총 11문항을 제시하였으며(Cronbach $\alpha = .67$), 祭禮에 대한 意識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최재석 1965, 박순천 1981, 임옥재 1981, 이길표 1982, 서봉자 1983, 홍현주 1983, 이영미 1987)를 기초로 하여 제례의 형식면에 국한시켜 요인분석한 결과, 祭祀의 必要性 및 奉祀者, 祭時 및 祭祀의 範圍, 祭需 및 祭器, 紙榜·祝文 및 祭服의 4부분으로 구성된 총 12문항을 제시하였다(Cronbach $\alpha = .79$).

婚禮에 대한 行動을 측정하기 위해 혼례에 대한 意識이 실제 行動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고자 혼례에 대한 意識과 동일한 4부분으로 구성된 총 11문항을 제시하였으며(Cronbach $\alpha = .69$), 祭禮에 대한 行動을 측정하기 위해 제례에 대한 意識이 실제 行動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고자 제례에 대한 意識과 동일한 4부분으로 구성된 총 12문항을 제시하였다(Cronbach $\alpha = .80$).

총 46개의 문항은 리커트 척도의 방식에 따른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전통적인 경향이고 5점에 가까울수록 근대적인 경향이다.

3. 調査對象, 資料蒐集 및 處理

1989년 1월말과 3월초에 걸쳐 서울시 주부를 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사항

(N=513)

배경변인	구분	빈도(%)
연령	20~29세	63(12.3)
	30~39세	202(39.4)
	40~49세	210(40.9)
	50~59세	38(7.4)
	계	513(100)
학력	국졸이하	45(8.8)
	중졸	91(17.7)
	고졸	176(34.3)
	전문대졸	45(8.8)
	대졸이상	156(30.4)
	계	513(100)
월평균 가계소득	40만원이하	60(11.7)
	41~60만원	158(30.8)
	61~80만원	105(20.5)
	81~100만원	107(20.8)
	101~150만원	54(10.5)
	151만원이상	29(5.7)
계	513(100)	
자녀수	무자녀	35(6.8)
	1명	96(18.7)
	2명	176(34.3)
	3명	112(21.9)
	4명이상	94(18.3)
계	513(100)	
결혼 지속년수	5년이하	103(20.1)
	6~10년	69(13.4)
	11~15년	81(15.8)
	16~20년	134(26.1)
	21~25년	64(12.5)
	26년이상	62(12.1)
계	513(100)	
종교	기독교	150(29.2)
	천주교	80(15.6)
	불교	142(27.7)
	무종교	130(25.4)
	기타	11(2.1)
계	513(100)	
직업	유	200(39.0)
	무	313(39.0)

	계	513(100)
기혼자녀	유	41(8.0)
	무	472(92.0)
	계	513(100)
가족형태	핵 가족	401(78.2)
	확대가족	112(21.8)
	계	513(100)

상으로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 최종분석자료로 513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computer program을 이용하여 예비조사시 측정도구 작성을 위한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실시하였고, 빈도분포, 백분율, 산술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t-test와 F-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유의도를 검증하였으며,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및 Paired-t-test와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調查結果 및 分析

1.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事項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빈도분포는 <표 1>과 같다.

2. 主婦의 婚·祭禮 意識

1) 婚·祭禮 意識의 一般의 傾向

주부의 婚·祭禮 意識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婚·祭禮 意識의 평균점수는 3점을 기준으로 하여 1점에 가까울수록 傳統的이고 5점에 가까울수록

近代的임을 나타내준다.

주부의 婚禮 意識의 평균점수는 3.35로 近代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結婚儀式에 대한 가치관이 근대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박인덕(1979, pp. 136-14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祭禮 意識의 평균점수는 3.01로 傳統性和 近代性的의 중간정도이며 이는 도시주부들의 祭禮行禮意識이 傳統志向의으로 나타난 박수정(1989, p. 33)의 연구결과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또한 婚·祭禮 意識의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는 <표 2>와 같다.

2) 背景變因에 따른 婚禮 意識

배경변인별로 주부의 婚禮 意識의 차이정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부의 연령에 따른 婚禮에 대한 意識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 .001$), 20대, 3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근대적이었는데 이는 이길표(1982, pp. 4-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위영역별로는 배우자선택($p < .001$), 폐백($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1$),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의 순으로 근대적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배우자선택($p < .001$), 약혼($p < .05$), 폐백($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평균 가계소득,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녀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1$), 무자녀, 3명, 4명 이상의 순으로 근대적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배우자선택($p < .001$), 혼수·합($p < .05$), 폐백($p < .001$)에서

<표 2> 혼·제례 의식의 일반적 경향

구 분	평균점수	표준편차	구 분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 혼례 의식	3.35	0.46	전체 제례 의식	3.01	0.66
배우자 선택	3.50	0.88	제사의 필요성 및 봉사자	2.56	0.71
약 혼	4.01	0.88	제시 및 제사의 범위	3.77	0.82
혼수·합	4.14	1.96	제수 및 제기	2.74	1.04
폐 백	1.96	2.56	지방·축문 및 제복	3.35	0.88
F	91.45***		F	20.68***	

* $p < .05$ ** $p < .01$ *** $p < .001$

< 표 3 > 배경변인과 혼례 의식

(N=513)

배경변인	구분	혼례 의 식									
		배우자선택		약혼		혼수·합		폐백		[선채 혼례]의 의 식	
		평균점수	Dun-Can's	평균점수	Dun-Can's	평균점수	Dun-Can's	평균점수	Dun-Can's	평균점수	Dun-Can's
연령	20~20세	3.99	A	3.98		4.21		2.27	A	3.57	A
	30~39세	3.56	B	4.04		4.18		2.02	B	3.39	B
	40~49세	3.36	BC	4.00		4.11		1.87	B	3.27	BC
	50세 이상	3.19	C	3.92		3.96		1.87	B	3.17	C
	F	10.64 ***		0.23		0.12		5.90 ***		9.97 ***	
학력	국졸이하	3.29	C	4.28	A	4.16		1.93	BC	3.34	BC
	중고	3.26	C	4.10	AB	4.04		1.75	C	3.21	C
	전문대졸	3.43	BC	4.00	AB	4.14		1.93	BC	3.32	BC
	대졸이상	3.99	A	4.18	A	4.31		2.27	A	3.64	A
	F	7.42 ***		3.22 *		1.68		5.83 ***		7.44 ***	
월가평 균소득	40만원이하	3.36		3.89		4.18		1.98		3.30	
	41~60만원	3.47		4.07		4.19		1.97		3.37	
	61~80만원	3.44		4.12		4.05		2.00		3.32	
	81~100만원	3.58		3.98		4.13		1.95		3.36	
	101~150만원	3.64		3.86		4.20		2.11		3.41	
F	1.00		1.17		1.17		0.47		0.47		
자녀 수	0명	3.92	A	3.97		4.21	A	2.38	A	3.59	A
	1명	3.77	A	4.00		4.16	AB	2.13	B	3.47	AB
	2명	3.48	B	3.90		4.19	A	1.90	BC	3.32	BC
	3명	3.41	B	4.13		4.15	AB	1.99	BC	3.35	B
	4명 이상	3.21	B	4.09		3.97	B	1.81	C	3.19	C
F	7.46 ***		1.47		2.58 *		6.12 ***		7.09 ***		
결혼 지속 수	5년이하	3.87	A	4.02		4.23	A	2.26	A	3.55	A
	6~10년	3.71	AB	3.86		4.17	A	1.93	B	3.38	B
	11~15년	3.45	BC	4.05		4.26	A	2.02	B	3.39	B
	16~20년	3.30	C	4.04		4.10	AB	1.88	B	3.26	BC
	21~25년	3.35	C	3.95		3.93	B	1.82	B	3.20	C
F	7.02 ***		0.73		3.12 **		4.93 ***		7.05 ***		
종교	기독교	3.68	A	3.99		4.17	AB	2.09		3.44	A
	천주교	3.50	AB	4.05		4.26	AB	1.96		3.39	A
	불교	3.16	B	3.98		4.01	B	1.81		3.18	B
	무종교	3.63	A	4.01		4.15	AB	2.02		3.40	A
	기타	3.76	A	4.36		4.33	A	2.06		3.56	A
F	8.19 ***		0.55		3.05 *		3.26 *		7.98 ***		
직업	유무	3.65		4.01		4.17		2.06		3.42	
	t	2.58 *		-0.03		0.90		2.18 *		2.55 *	
기자 혼녀	유무	8.11		4.01		3.95		1.84		3.16	
	t	2.95 **		-0.03		2.16 *		1.31		2.82 **	
가형 족태	핵가족	3.69		3.97		4.23		2.00		3.42	
	확대가족	3.45		4.02		4.12		1.97		3.33	
t	-2.56 *		0.54		-1.79		-0.37		-1.90		

*p<.05 **p<.01 ***p<.001

<표 4> 배경변인과 제례 의식

(N=513)

배경인	구분	제례 의식									
		제사의필요성 및봉사자		제시범위		제수및기		지방·축문 및제		전체제례 의식	
		평균점수	Dun-Can's	평균점수	Dun-Can's	평균점수	Dun-Can's	평균점수	Dun-Can's	평균점수	Dun-Can's
연령	20~29세	2.89	A	4.05	A	3.28	A	3.72	A	3.42	A
	30~39세	2.58	B	3.79	AB	2.74	B	3.36	B	3.02	B
	40~49세	2.47	B	3.74	B	2.61	B	3.27	B	2.91	BC
	50세 이상	2.82	B	3.46	C	2.61	B	3.12	B	2.80	C
	F	6.89***		4.45**		7.34***		5.15**		11.46***	
학력	국졸이하	2.34	CD	3.51	B	2.48	CD	3.06	CD	2.74	C
	중졸	2.22	D	3.51	B	2.36	D	2.97	D	2.64	C
	고졸	2.55	BC	3.66	B	2.71	BC	3.34	BC	2.98	B
	전문대졸	2.67	AB	4.00	A	3.05	A	3.68	A	3.27	A
	대졸이상	2.79	A	4.07	A	3.00	AB	3.58	AB	3.26	A
F	11.56***		10.73***		7.56***		10.23***		18.57***		
월가 평균소득	40만원이하	2.48	C	3.72	B	2.64		3.12	C	2.90	B
	41~60만원	2.47	C	3.61	B	2.80		3.26	BC	2.95	B
	61~80만원	2.56	BC	3.82	B	2.65		3.33	BC	2.99	B
	81~100만원	2.51	C	3.84	B	2.63		3.41	ABC	2.98	B
	101~150만원	2.88	A	4.14	A	3.07		3.73	A	3.35	A
151만원이상	2.78	AB	3.72	B	2.74		3.51	AB	3.10	AB	
F	3.72**		3.85**		1.76		3.49**		3.74**		
자녀 수	0명	2.84	A	3.91	A	3.19	A	3.63	A	3.34	A
	1명	2.72	AB	3.98	A	3.01	AB	3.53	AB	3.22	AB
	2명	2.59	BC	3.85	A	2.77	BC	3.40	AB	3.05	BC
	3명	2.45	CD	3.75	A	2.63	CD	3.30	BC	2.93	C
	4명 이상	2.35	D	3.41	B	2.39	D	3.04	C	2.69	D
F	5.64***		7.13***		6.71***		5.20***		11.55***		
결혼 년수	5년 이하	2.84	A	4.00	A	3.08	A	3.62	A	3.31	A
	6~10년	2.62	AB	3.91	AB	2.78	ABC	3.36	AB	3.06	BC
	11~15년	2.55	BC	3.75	ABC	2.92	AB	3.59	A	3.12	AB
	16~20년	2.47	BC	3.71	BC	2.60	BC	3.26	BC	2.90	CD
	21~25년	2.45	BC	3.67	BC	2.44	C	3.11	BC	2.81	D
26년이상	2.34	C	3.54	C	2.51	C	3.02	C	2.74	D	
F	5.49***		3.38**		5.18***		6.44***		9.55***		
종교	기독교	2.80	A	3.78	AB	3.12	A	3.47	AB	3.24	A
	천주교	2.55	AB	4.03	A	2.93	A	3.77	A	3.20	AB
	불교	2.33	B	3.52	B	2.30	B	2.93	C	2.66	C
	무종교	2.65	AB	3.90	AB	2.66	AB	3.42	AB	3.01	AB
	기타	2.41	B	3.64	B	2.85	A	3.33	B	2.93	BC
F	8.63***		6.41***		13.87***		15.10***		18.71***		
직업	유무	2.63		3.86		2.76		3.45		3.08	
	t	1.98*		1.95		2.04*		2.04*		1.91	
기자 혼녀	유무	2.20		3.26		2.23		2.89		2.54	
	t	3.45***		4.24***		3.34***		3.48***		4.84***	
가형 주택	핵가족	2.58		3.72		2.85		3.44		3.06	
	확대가족	2.55		3.79		2.71		3.32		3.00	
t	-0.34		0.82		-2.28		-1.26		-0.84		

*p<.05 **p<.01 ***p<.001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지속년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 .001$), 결혼년수가 5년이하인 집단이 타집단에 비해 뚜렷이 근대적이었는데 이는 결혼년수가 짧은 주부들이 대체로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현실적, 합리적인 意識을 갖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위영역별로는 배우자선택 ($p < .001$), 혼수·함 ($p < .01$), 케백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 .001$), 불교가 타종교 집단들보다 뚜렷이 전통적이었는데 이는 이길표(1982, pp. 117-119)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하위영역별로는 배우자선택 ($p < .001$), 혼수·함 ($p < .05$), 케백 ($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유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5$),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근대적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배우자선택 ($p < .05$), 케백 ($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혼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1$), 기혼자녀가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근대적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배우자선택 ($p < .01$), 혼수·함 ($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以上的 분석결과에서 주부의 婚禮에 대한 意識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肯定되었다.

3) 背景變因에 따른 祭禮 意識

배경변인별로 주부의 祭禮 意識의 차이정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주부의 연령에 따른 祭禮에 대한 意識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 .001$), 20대, 30대, 50세 이상의 순으로 근대적이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祭禮에 대한 意識에서 전통적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임옥재(1981, p. 156), 이길표(1982, p. 117), 이연주(1984, p. 111), 홍현주(1986, p. 6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하위영역별로는 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 .001$), 이는 박인덕(1979, p. 81)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나 옥선화(1975, p. 149)의 연구결과와

는 상반된다 추후검증결과, 전문대졸이상, 고졸, 중졸이하의 순으로 근대적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전영역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1$), 101~150만원 집단이 100만원이하 집단들보다 뚜렷이 근대적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제수 및 제기를 제외한 3영역 ($p <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01$), 무자녀, 3명, 4명이상의 순으로 근대적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전영역 ($p <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지속년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01$), 결혼년수가 15년이하인 집단들이 21년이상인 집단들보다 근대적이었는데, 이는 결혼년수가 짧은 주부들이 연령이 낮으므로 젊은층 주부들의 합리적, 현실추구적 가치성향과 높은 연령층 주부들의 보수적 전통성향이 상반되어 祭禮에 대한 意識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하위영역별로는 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 .001$), 기독교가 불교와 기타집단보다, 천주교와 무종교가 불교 집단보다 근대적이었는데 이는 祭禮意識이 기독교층에서 가장 낮았고 유교층에서는 가장 높았다는 이길표(1982, pp. 117-119)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하위영역별로는 전영역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유무,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혼자녀유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01$), 기혼자녀가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근대적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전영역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以上的 분석결과에서 주부의 祭禮에 대한 意識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2)은 부분적으로 肯定되었다.

3. 主婦의 婚·祭禮 行動

1) 婚·祭禮 行動의 一般의 傾向

주부의 婚·祭禮 行動의 일반적 경향은 <표 5>와 같다.

<표 5> 혼·제례 행동의 일반적 경향

구 분	평균점수	표준편차	구 분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 혼례 행동	3.25	0.43	전체 제례 행동	3.11	0.57
배우자 선택	3.41	0.81	제사의 필요성 및 봉사자	2.34	0.95
약 혼	3.40	0.99	제사 및 제사의 범위	3.72	0.80
혼수·함	3.93	0.77	제수 및 제기	3.12	0.75
폐 백	2.31	0.77	지방·축문 및 제복	3.25	0.83
F	44.57***		F	25.52***	

*p<.05 **p<.01 ***p<.001

주부의 婚禮 行動의 평균점수는 3.25로 近代的으로 나타났으며, 祭禮行動의 평균점수는 3.11로 다소 近代的인 경향이었는데, 이는 도시주부들의 祭禮行動이 傳統志向的으로 나타난 박수정(1989, p. 33)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또한 婚·祭禮行動의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는 <표 5>와 같다.

2) 背景變因에 따른 婚禮 行動

배경변인별로 주부의 婚禮 行動의 차이정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주부의 연령에 따른 婚禮에 대한 行動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20대가 40대이상 집단보다, 30대가 50세이상 집단보다 근대적이었는데 이는 婚禮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傳統意識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길표(1989, p. 15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위영역별로는 배우자선택(p<.001), 폐백(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1), 전문대졸이 타집단들보다 뚜렷이 근대적이었다. 이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婚禮에 있어 실리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행하나 대졸이상인 전문대졸보다 傳統的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최고학력자들의 사회경제적 우위가 혼례에서 남의 耳目과 外觀을 중시해 誇示的, 浪費的 消費風潮 방향으로 행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는 약혼을 제외한 3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평균가계소득, 종교,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5), 무자녀 집단이 3명이상 집단보다 근대적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배우자선택(p<.05), 폐백(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지속년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결혼년수가 5년이하인 집단이 16년이상인 집단들보다 뚜렷이 근대적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약혼을 제외한 3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혼자녀유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기혼자녀가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근대적이었다.

가족형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핵가족이 확대가족 집단보다 근대적이었는데, 이는 확대가족 집단의 傳統을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이 婚禮 行動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以上の 분석결과는 주부의 婚禮에 대한 行動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가설 2-1)은 부분적으로 肯定되었다.

3) 背景變因에 따른 祭禮 行動

배경변인별로 祭禮 行動의 차이정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주부의 연령에 따른 祭禮에 대한 行動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20대가 타집단들보다 뚜렷이 근대적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제사 및 제사의 범위를 제외한 3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전문대졸, 고졸, 중졸이하 집단의 순으로 근대적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 표 6 > 배경변인과 혼례 행동

(N=513)

배경변인	구분	혼례 행동									
		배우자선택	약혼	혼수·합	폐백	신채혼례					
		평균점수	Dun-Can's	평균점수	Dun-Can's	평균점수	Dun-Can's	평균점수	Dun-Can's	평균점수	Dun-Can's
연령	20~20세	3.71	A	3.36		3.84		2.69	A	3.40	A
	30~39세	3.49	AB	3.39		3.90		2.41	B	3.29	AB
	40~49세	3.31	BC	3.44		4.01		2.11	C	3.20	BC
	50세 이상	3.06	C	3.27		3.78		2.22	BC	3.07	C
	F	7.26***		0.35		1.64		11.74***		6.40***	
학력	국졸이하	3.35	BC	3.44		3.87	AB	2.27	BC	3.21	B
	중졸	3.15	C	3.48		4.10	A	2.02	C	3.17	B
	고졸	3.42	ABC	3.46		3.96	AB	2.23	BC	3.25	B
	전문대졸	3.67	A	3.40		3.99	AB	2.73	A	3.45	A
	대졸이상	3.50	AB	3.26		3.80	B	2.45	B	3.25	B
F	4.26**		1.10		2.50*		8.73***		3.39**		
월가 평균소득	40만원이하	3.23		3.38		4.07		2.30		3.24	
	41~60만원	3.50		3.37		3.93		2.34		3.25	
	61~80만원	3.26		3.45		3.88		2.30		3.21	
	81~100만원	3.48		3.43		4.01		2.29		3.29	
	101~150만원	3.54		3.38		3.85		2.56		3.33	
	151만원이상	3.38		3.33		3.68		2.33		3.17	
F	2.16		0.15		1.41		1.45		0.92		
자녀 수	0명	3.67	A	3.44		3.94		2.59	A	3.41	A
	1명	3.53	AB	3.22		3.77		2.55	AB	3.27	AB
	2명	3.44	ABC	3.36		3.97		2.32	BC	3.27	AB
	3명	3.33	BC	3.57		4.00		2.17	C	3.25	B
	4명이상	3.25	C	3.44		3.92		2.09	C	3.15	B
F	2.69*		1.80		1.37		6.47***		2.58*		
결혼 지속 년수	5년이하	3.66	A	3.33		3.87	A	2.65	A	3.38	A
	6~10년	3.53	AB	3.29		3.84	A	2.49	AB	3.29	AB
	11~15년	3.50	BC	3.48		3.90	A	2.34	BC	3.29	AB
	16~20년	3.23	C	3.47		4.02	AB	2.02	D	3.18	B
	21~25년	3.40	C	3.34		3.99	B	2.16	CD	3.20	B
	26년이상	3.16	C	3.41		3.92	AB	2.21	CD	3.15	B
F	7.02***		0.73		3.12**		4.93***		3.68**		
종교	기독교	3.52		3.37		3.84		2.44		3.29	
	천주교	3.44		3.38		4.03		2.32		3.29	
	불교	3.23		3.41		3.93		2.15		3.16	
	무종교	3.46		3.42		3.96		2.32		3.28	
	기타	3.42		3.46		4.15		2.32		3.34	
F	2.67*		0.06		1.12		2.66*		2.32		
직업	유부	3.54		3.43		3.86		2.38		3.28	
	무부	3.33		3.35		3.96		2.26		3.23	
	t	2.85**		-0.88		-1.26		1.75		1.26	
기혼 년수	유부	3.18		3.37		3.86		2.14		3.12	
	무부	3.43		3.40		3.94		2.32		3.26	
	t	1.92		0.21		0.58		1.43		2.04*	
가형 주택	핵가족	3.50		3.48		3.98		2.39		3.33	
	확대가족	3.39		3.37		3.92		2.28		3.23	
	t	-1.32		-1.02		-0.79		-1.33		-2.26*	

*p<.05 **p<.01 ***p<.001

< 표 7 > 배경변인과 제례 행동

(N=513)

배경변인	구분	제례 행동									
		제사의 필요성 및 봉사자		제사의 범위		제수 및 제		지방·축문 및 축문		전체제례행동	
		평균점수	Dun-Can's	평균점수	Dun-Can's	평균점수	Dun-Can's	평균점수	Dun-Can's	평균점수	Dun-Can's
연령	20~29세	2.81	A	3.92		3.37	A	3.50	A	3.39	A
	30~39세	2.43	B	3.67		3.11	B	3.22	AB	3.11	B
	40~49세	2.18	BC	3.73		3.07	B	3.25	B	3.05	B
	50세 이상	2.00	C	3.68		3.04	B	3.04	B	2.94	B
	F	10.09***		1.53		2.70*		2.79*		7.31***	
학력	국졸 이하	1.97	B	3.70	A	3.01	B	3.00	C	2.92	C
	중졸	2.00	B	3.41	B	2.93	B	3.03	BC	2.84	C
	고졸	2.35	A	3.68	A	3.15	AB	3.29	AB	3.12	B
	전문대졸	2.56	A	3.90	A	3.36	A	3.51	A	3.33	A
	대학졸 이상	2.57	A	3.92	A	3.16	AB	3.34	B	3.25	AB
F	8.09***		6.61***		3.19*		4.38***		11.23***		
월가 평균소득	40만원이하	2.41		3.67		3.09		3.17		3.09	
	41~60만원	2.34		3.62		3.11		3.22		3.07	
	61~80만원	2.29		3.84		3.17		3.19		3.12	
	81~100만원	2.21		3.74		3.03		3.24		3.06	
	101~150만원	2.63		3.82		3.36		3.51		3.32	
	151만원이상	2.33		3.76		3.00		3.41		3.13	
F	1.50		1.16		1.70		1.57		1.93		
자녀 수	0명	2.90	A	3.95		3.39	A	3.51	A	3.44	A
	1명	2.61	AB	3.76		3.18	AB	3.30	A	3.21	B
	2명	2.34	BC	3.73		3.12	BC	3.32	A	3.13	B
	3명	2.17	BCD	3.78		3.16	ABC	3.29	A	3.10	B
	4명 이상	2.06	CD	3.53		2.91	C	2.95	B	3.86	C
	F	8.32***		2.27		3.18*		4.55***		8.62***	
결혼 지속 수	5년 이하	2.73	A	3.89		3.26	A	3.39	A	3.31	A
	6~10년	2.50	AB	3.73		3.08	AB	3.18	AB	3.12	BC
	11~15년	2.40	BC	3.74		3.30	A	3.40	A	3.21	AB
	16~20년	2.23	BCD	3.63		3.06	AB	3.22	AB	3.03	BC
	21~25년	2.10	CD	3.70		2.90	B	3.15	AB	2.96	C
	26년 이상	1.94	D	3.65		3.08	AB	3.09	B	2.93	C
F	5.49***		3.38**		5.18***		6.44***		5.96***		
종교	기독교	2.83	A	3.65	AB	3.29	A	3.34	B	3.28	AB
	천주교	2.35	B	3.99	A	3.32	A	3.71	A	3.34	A
	불교	1.96	B	3.59	B	2.88	B	2.97	B	2.85	C
	무종교	2.21	B	3.81	AB	3.05	AB	3.39	B	3.06	BC
	기타	2.00	B	3.52	B	3.24	A	3.21	B	2.99	C
F	19.17***		4.05**		7.70***		11.68***		16.14***		
직업	유무	2.43		3.75		3.17		3.35		3.18	
	무	2.28		3.71		3.09		3.19		3.07	
	t	1.69		0.61		1.28		2.07*		2.13*	
기자 혼녀	유무	1.74		3.64		2.94		3.05		2.84	
	무	2.39		3.73		3.14		3.27		3.13	
	t	5.33***		0.68		1.62		1.64		3.26**	
가형 족태	핵가족	2.39		3.75		3.21		3.33		3.17	
	확대가족	2.33		3.72		3.10		3.23		3.09	
	t	-0.58		-0.32		-1.48		-1.11		-2.03	

*p<.05 **p<.01 ***p<.001

있었다.

월평균 가계소득, 가족형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녀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01$), 무자녀, 1~3명, 4명 이상의 순으로 근대적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제사 및 제사의 범위를 제외한 3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지속년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 .001$), 결혼년수가 5년이하인 집단이 6년이상인 집단들보다 근대적이었는데, 이는 결혼년수가 오래된 주부들이 家庭生活에서의 반복적인 제례 행사에 있어 다소 번거로움이 따르더라도 그격식이나 형식 등에서 변화없이 傳統的으로 행함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는 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 .001$), 기독교와 천주교가 불교와 기타 집단보다 근대적이었고, 무종교가 천주교 집단보다 전통적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전영역에서 불교가 타종교 집단에 비해 傳統 固守 현상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홍현주(1986, p. 60), 박순천(1986, pp. 64-66), 박수정(1989, p. 56)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직업유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5$),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근대적이었는데 이는 취업주부의 이중역할 등이 가정행사 수행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하위영역별로는

지방·축문 및 제복($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혼자녀유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1$), 기혼자녀가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근대적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제사의 필요성 및 봉사자($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以上的 분석결과에서 주부의 祭禮에 대한 行動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가설 2-2)는 부분적으로 肯定되었다.

4. 主婦의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間的 關係

<표 8>에 의하면 주부의 婚·祭禮에 대한 意識 및 行動간에는 正的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 < .001$). 즉 婚禮에 대한 意識이 近代의일수록 제례에 대한 의식, 혼례에 대한 행동, 제례에 대한 행동이 근대적으로 나타났고, 祭禮에 대한 意識이 近代의일수록 혼례에 대한 행동, 제례에 대한 행동도 근대적으로 나타났으며, 婚禮에 대한 行動이 近代의일수록 제례에 대한 행동도 근대적으로 나타났

<표 8> 혼·제례에 대한 의식 및 행동간의 Pearson 상관관계

변 인	혼례에 대한 의식	제례에 대한 의식	혼례에 대한 행동	제례에 대한 행동
혼례에 대한 의식	1.00			
제례에 대한 의식	.38***	1.00		
혼례에 대한 행동	.58***	.27***	1.00	
제례에 대한 행동	.33***	.74***	.36***	1.00

* $p < .05$ ** $p < .01$ *** $p < .001$

<표 9> 하위영역별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간의 Pearson 상관관계

의식 행동	혼 려				제 려				
	배우자 선택	약 혼	혼수·합	폐 백	제사의 필요성 및 봉사자	제 시 및 제사의 의위	제 수 및 제	지방·축문 및 제복	
배우자 선택	.56***	.01	.16***	.16***	.65***	.20***	.51***	.32***	
약 혼	.01	.45***	.22***	.03	.16***	.54***	.15***	.29***	
혼 수 · 합	.02	.35***	-.39***	-.05	.28***	.28***	.56***	.41***	
폐 백	.15***	.03	.07	.46***	.22***	.32***	.36***	.59***	

* $p < .05$ ** $p < .01$ *** $p < .001$

는데 이는 이길표(1982, pp. 1-3), 박수정 (1989, p. 60)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표 9>에 의하면 하위영역별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婚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에서 볼 때, 「배우자선택」에 대한 의식과 「배우자선택」에 대한 행동, 「케백」에 대한 행동과는 正的 상관을 보였고, 「약혼」에 대한 의식과 「약혼」에 대한 행동, 「혼수·함」에 대한 행동과 正的 상관을 보였다. 「혼수·함」에 대한 의식과 「배우자선택」에 대한 행동, 「약혼」에 대한 행동과는 正的 상관을 보였으며, 「혼수·함」에 대한 의식과 「혼수·함」에 대한 행동과는 負的 상관을 보여 「혼수·함」에 대한 의식이 근대적일수록 행동은 전통적임을 알 수 있어 매우 주목할 만하다. 또 「케백」에 대한 의식과 「배우자선택」에 대한 행동, 「케백」에 대한 행동과는 正적 상관을 나타냈다.

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에서 볼 때 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순 하위영역에서 모두 正的 상관을 보였다.

以上에서 볼 때 주부의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가설 3)은 肯定되었다.

또한 주부의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주부의 婚禮에 대한 意識은 行動보다 近代的이었다($p < .001$). 주부의 혼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식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하리라고 사료된다. 하위영역별로 볼 때, 「배우자선택」, 「약혼」, 「혼수·함」에서는 의식이 행동보다 근대적이었으며, 「케백」에서는 행동이 의식보다 근대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부의 祭禮에 대한 行動은 意識보다 近代的이었다($p < .001$). 여기서는 아직도 제례에 있어서 주부의 전통적인 의식이 행동보다 더 많이 남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볼 때, 「제사의 필요성 및 봉사자」, 「제수 및 제기」에서는 행동이 의식보다 근대적이었고, 「제시 및 제사의 범위」에서는 의식과 행동의 차이가 없었으며, 「지방·축문 및 제복」에서는 의식이 행동보다 근대적으로 나

타났다.

5. 主婦의 婚·祭禮 意識과 行動에 影響을 미치는 變因

1) 主婦의 婚·祭禮 意識에 影響을 미치는 變因

주부의 婚·祭禮 意識에 影響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주부의 婚禮에 대한 意識에 가장 중요한 影響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지속년수($\beta = -.226$)였으며 이것의 설명력은 10.3%였다. 즉 결혼년수가 짧을수록 혼례에 대한 의식은 근대적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배우자선택에서는 결혼지속년수($\beta = -.184$), 가족형태($\beta = .1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1.6%였다. 약혼에서는 학력($\beta = -.139$)이었으며 설명력은 6.9%였다. 혼수·함에서는 결혼지속년수($\beta = -.130$)였으며 설명력은 6.5%였고, 케백에서도 결혼지속년수($\beta = -.139$)였으며 설명력은 8.4%였다.

주부의 祭禮에 대한 意識에 가장 중요한 影響을 미치는 변인은 학력($\beta = .250$), 기혼자녀유무($\beta = -.123$), 자녀수($\beta = -.101$)의 순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8.4%였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자녀가 없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제례에 대한 의식은 근대적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제사의

<표 10>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차이 분석 (N=513)

구 분	행동-의식	평균점수	표준편차	t
전체 혼례		-0.101	0.411	-5.570***
배우자선택 약 혼 혼 수·함 케 백		-0.093	0.789	-2.672***
		-0.606	0.984	-13.943***
		-0.208	0.784	-6.001***
		0.335	0.766	9.899***
전체 제례		0.099	0.456	4.895***
제사의 필요성 및 봉사자 제시 및 제사의 범위 제수 및 제기 지방·축문 및 제복		0.157	0.622	5.726***
		-0.059	0.783	-1.709
		0.381	0.872	9.905***
		-0.090	0.776	-2.739**

* $p < .05$ ** $p < .01$ *** $p < .001$

필요성 및 봉사자에서 학력($\beta = .208$), 기혼자녀유무($\beta = -.143$)의 순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4.0%였다. 제수 및 제기에서는 학력($\beta = .137$), 자녀수($\beta = -.127$)의 순이었고 이들의 설명력은

<표 11> 혼·제례 의식 : 단계적 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RSQ change	β	F
전체 혼례 의식	결혼지속년수	.103	.103	-.226	28.817***
배우자 선택	결혼지속년수	.104	.104	-.184	29.252***
	가족형태	.116	.012	.137	6.484*
약혼	학력	.069	.069	-.139	10.024**
혼수·함	결혼지속년수	.065	.065	-.130	8.003**
폐백	결혼지속년수	.084	.084	-.139	18.039***
전체 제례 의식	학력	.154	.154	.250	59.458***
	기혼자녀유무	.177	.023	-.123	13.572***
	자녀수	.184	.007	-.101	3.941*
제사의 필요성 및 봉사자	학력	.119	.119	.208	37.981***
	기혼자녀유무	.130	.011	-.121	6.023*
	월평균가계소득	.137	.007	.091	3.924*
제시 및 제사의 범위	학력	.121	.121	.234	38.776***
	기혼자녀유무	.140	.091	-.143	10.656**
제수 및 제기	자녀수	.096	.096	-.127	24.349***
	학력	.109	.013	.137	7.387**
지방·축문 및 제복	학력	.103	.103	.250	28.557***
	기혼자녀유무	.115	.012	-.123	6.834**
	월평균가계소득	.125	.010	-.101	5.284*

<표 12> 혼·제례 행동 : 단계적 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RSQ change	β	F
전체 혼례 행동	연령	.088	.088	-.193	20.020***
	가족형태	.097	.009	.097	5.038*
배우자 선택	연령	.098	.098	-.199	25.500***
혼수·함	학력	.061	.061	-.078	5.431*
폐백	결혼지속년수	.106	.106	-.237	30.262***
전체 제례 행동	학력	.106	.106	.165	30.228***
	자녀수	.122	.016	-.157	8.973**
제사의 필요성 및 봉사자	결혼지속년수	.130	.130	-.241	44.167***
	종교	.144	.014	.121	8.027**
	학력	.152	.008	.107	4.660*
제시 및 제사의 범위	학력	.078	.078	.168	14.801***
제수 및 제기	자녀수	.067	.067	-.141	8.673**
지방·축문 및 제복	자녀수	.076	.076	-.150	13.627***

10.9%였다. 지방·축문 및 제복에서는 학력($\beta = .250$), 기혼자녀유무($\beta = -.123$), 월평균가계소득($\beta = -.101$)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2.5%였다.

2) 主婦의 婚·祭禮 行動에 影響을 미치는 變因

주부의 婚·祭禮 行動에 影響을 미치는 變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주부의 祭禮에 대한 行動에 가장 중요한 影響을 미치는 變인은 학력($\beta = .165$), 자녀수($\beta = .097$)의 순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9.7%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핵가족일수록 혼례에 대한 행동은 근대적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배우자선택에서 연령($\beta = -.199$)이었으며 설명력은 9.8%였다. 혼수·함에서는 학력($\beta = -.078$)이었으며 설명력은 6.1%였다. 폐백에서는 결혼지속년수($\beta = -.237$)였으며 설명력은 10.6%였다.

주부의 婚禮에 대한 行動에 가장 중요한 影響을 미치는 變인은 연령($\beta = -.193$), 가족형태($\beta = -.15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2.2%였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제례에 대한 행동은 근대적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제사의 필요성 및 봉사자에서는 결혼지속년수($\beta = -.241$), 종교($\beta = .121$), 학력($\beta = .107$)의 순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5.2%였다. 제시 및 제사의 범위에서는 학력($\beta = .168$)이었으며 설명력은 7.8%였다. 제수 및 제기에서는 자녀수($\beta = -.141$)였으며 설명력은 6.7%였다. 지방·축문 및 제복에서는 자녀수($\beta = -.150$)였으며 설명력은 7.6%였다.

V. 結論 및 提言

以上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대체로 都市主婦의 婚·祭禮 양상이 近代化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의 전반에서 자녀수가 적을수록 近代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오늘날 핵가족화와 더불어 婚·祭禮에 대한 복잡성을 탈피해 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되며, 高學歷層 主婦들의 近代의 성향은 사회 전반에까지 큰 影響을 미칠 것으로 이들의 婚·祭禮에 대한 合理的인 思考나 行

爲가 가정생활에도 변화를 주리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기혼자녀가 없는 주부의 近代의 양상을 볼 때, 子女를 결혼시켜 본 經驗이 있는 주부라도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단지 연령과 관련시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高年齡層 主婦들의 傳統의 성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사실상 우리의 傳統 婚·祭禮가 반드시 비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지나친 격식과 형식위주의 保守性에서는 어느 정도 탈피하여 現代의 추세에 맞추어 적절히 융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젊은층 主婦들도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에서 합리적, 실리추구적 경향의 바람직한 면은 계속 생활속에 유지시켜야 하고, 지나친 편리위주의 傳統 경시적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 연령층의 主婦들에게 정보제공을 해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사회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傳統儀禮教育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단체기관이나 매스컴을 통한 婚·祭禮에 대한 건전한 풍토조성도 큰 몫을 하리라고 본다.

한편 主婦들의 婚·祭禮에 대한 行動의 저변에는 그들의 價値觀이나 意識 등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되어 婚·祭禮에 대한 현대적 경향의 의미구현 등도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주목할 점은 “혼수·함”의 하위영역에서는 意識과 行動이 負的 相關을 나타냈는데, 혼수준비 등의 혼례의 물질적인 면에서는 주부의 合理的 近代의 意識이 오히려 非合理的 行動을 유발시켜 혼수·예단 등의 결혼준비물이 과다한 소비풍조의 외형추구로 흐름을 알 수 있어 오늘날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婚禮에 대한 意識은 行動보다 近代的이었으므로 主婦들의 합리적인 의식을 행동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리라고 보며, 祭禮에 있어서는 行動이 意識보다 近代的이었는데 전통적 제례의식을 現 狀況에 맞게 융통성 있는 행동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급변하는 現代社會에서 主婦들이 우리나라의 傳統의 婚·祭禮의 참뜻을 올바르게 알고 現代의 양상에 맞는 婚·祭禮의 의미를 재정립하여 혼·제례중 바람직한 美風良俗은 계승하되 虛禮虛

飾과 弊習 등은 개선시켜 혼·제례 행사수행에 있어서 合理的인 의사결정을 하고 창의적으로 각 가정의 형편에 맞게 計劃하는 것은 가정생활 전반의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건전한 社會氣風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기초로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提言을 하고자 한다.

첫째,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의 설문지를 보완한 표준화된 설문지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婚·祭禮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傳統儀禮가 現代의 양상에 적합한 意識과 行動으로 이어지는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셋째, 혼·제례 행사 수행은 가정행사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婚·祭禮에 대한 意識과 行動이 가정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장은숙,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1.
- 고영복, “한국가족문화의 변용과정”, 아세아 연구 제 5권 2호, 1967.
- 김명자,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제24집, 1985.
- 김상혁, 「冠婚喪祭」, 서울: 하서출판사, 1989.
- 김성배, 「한국의 민속」, 서울: 집문당, 1980.
- 김일미, “조선의 혼속변천과 그 사회적 성격”, 이대 사학연구 제 4 집, 1969.
- 김태길, 「새로운 가치관의 지향」, 서울: 민중서관, 1975.
- 박수정, “都市主婦의 祭禮行動意識과 祭禮行動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6.
- 박순천, “都市主婦의 家庭生活觀과 祭祀行禮意識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6.
- 박인덕, “韓國家庭生活의 價値觀에 관한 一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79.
- 보건사회부, 「가정의례해설」, 1973.
- 서봉자, “祖上崇拜思想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3.
- 양재연 外, 「한국 풍속지」, 서울: 을유문화사, 1980.
- 「禮記」, 冠儀 婚義 第四十四
- 옥선화,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의 전통성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3권 4호, 1975.
- 이광규, “친족집단과 조상숭배”, 한국문화인류학 제 19집, 1977.
- 이길표, “家禮를 通해본 韓國人の 意識構造 研究-婚·祭禮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2.
- _____, “都市主婦의 家庭經營觀과 家庭儀禮와의 相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1호, 1989.
- 이두현 外, 「한국민속학개설」, 서울: 보성문화사, 1982.
- 이연주, “한국가족의 변화에 관한 일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2호, 1984.
- 이영미, “祭禮의 意義와 行禮에 關한 研究”, 성신연구논문집 제126집, 1987.
- 이혜영 外, “가족가치 변용에 일고찰”, 진단학보 제 31호, 1967.
- 이행숙, “우리나라 女性의 結婚意識과 婚費支出에 대한 研究-서울시내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2.
- 이효재, “한국 결혼제도를 통하여 본 변동의 유형”, 진단학보 제31호, 1967.
- _____,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1983.
- 임논희, “한국조상숭배의 미래상”, 한국문화인류학 제18집, 1986.
- 임옥재, “제사에 대한 부녀자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아세아여성연구 제20집, 1981.
- 장철수,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한국문화의 전통성-관혼상제 분야-”, 문화인류학 제 7 집, 1975.
- 조기홍 外, 「禮論」,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 조양재, 「冠婚喪祭」, 서울: 일신서적공사, 1989.
- 최재석, “한국인의 가족의식의 변용”, 진단학보 제26호, 1965.
- _____, 「한국가족연구」, 서울: 민중서관, 1966.
- _____, “한국도시가족의 기능”, 아세아여성연구 제 9 집, 1970.
- _____, “촌락사회에서의 혼인의 변화”, 아세아여성연구 제26집, 1987.
- 최호원, “婚姻意識에 나타난 配遇者選定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3.
- 홍준숙, “未婚男女의 結婚關에 관한 研究”,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7.
- 홍현주, “祖上祭禮에 對한 價値觀 研究”,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6.